

절도 노린 '위장알바'...해도 너무한다

편의점·PC방·식당 일하다 물건 훔쳐 달아나기 일쑤

영세 사업장 잇단 피해 불구 "신분확인 못했다" 한숨만

"이런 곳에서 일 해주는 게 감지덕 지죠. 사람을 가려 봐도 안 못해요. 요즘은 주인이 아르바이트생 눈치 보는 시대예요."(서구 풍암동 J음식점 나모(여·46)씨)

"이 근처 편의점 4~5곳 중에 아르바이트생 도난 피해를 안 당한 곳이 없어요. 업주들이 '사람 잘못 본 내 탓'이라고 그냥 넘어가서 많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광산구 수완동 C 편의점 업주 최모(30)씨)

편의점 등에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거짓

취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주로 편의점과 PC방, 식당 등 영세 사업장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정모(46)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이날 밤 10시께 배달용 승용차, 스마트폰, 현금 등 411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양모(31)씨를 절도 혐의로 8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

과 양씨는 같은 달 2일 오후 4시께 역시 광산구 산월동 한 차킨집에 위장 취업해 배달용 오토바이와 현금 등 약 94만원을 훔친 전력이 있었다.

지난 5일 밤 9시께에는 서구 화정동 안모(36)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윤모(17)군이 취업한 지 3일 만에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뒤 일주일 만에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김모(여·42)씨의 아파트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께 목걸이, 팔찌, 반지 등 7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임모(여·50)씨가 지난 8일 절도혐의로 광주남부경찰에 구속되기도 하는 등 거짓 취업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규제를 하기 어렵고, 당사 일손이 급한 영세사업장들은 정확한 신분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계자는 "면접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미리 요구하고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남구 봉선로 일부 정류장 조성 남구 신청사 이전따라

광주 남구는 다음달 8일 예정된 신청사 개청식 전까지 봉선로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봉선로24 '목포복집' 앞에 있던 정류장은 봉선로16 '실용신선초' 앞으로, 봉선로42 '광명메이루즈 건설현장'에 있던 정류장은 봉선로57 '하이마트 건너편'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봉선로17 '쭈꾸미 식당' 앞에는 정류장 신설된다. 이 밖에 '국제호텔 앞' 정류장은 '남구청'으로, '남구청 정류장'은 '문성고 입구' 정류장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남구는 18일부터 2주간 정류장 변경과 관련된 공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4분 / 해질 18시 46분 / 달뜨기 13시 48분 / 달지기 03시 11분

구름낀 하늘

오늘까지 출다가 주말들어 날씨 풀리겠다.

광주	구름맑음	1/12°C
목포	구름맑음	2/10°C
여수	구름맑음	4/10°C
나주	구름맑음	-2/12°C
완도	구름맑음	3/12°C
구례	구름맑음	-2/12°C
강진	구름맑음	-1/12°C
해남	구름맑음	-1/12°C
장흥	구름맑음	-1/13°C
순천	구름맑음	-2/11°C
영광	구름맑음	-2/11°C
진도	구름맑음	2/10°C
전주	구름맑음	0/12°C
군산	구름맑음	-1/9°C
남원	구름맑음	-3/12°C
속산도	구름맑음	5/9°C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노출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15	4/14	2/10	-1/13	2/15	7/12



21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장관(앞줄 가운데)과 각 시도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도교육감 "학폭 막기 교원 늘려달라"

광주서 교육감협의회...지방교부금 23%로 상당 건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교원 정원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 인성지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부에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교원 정원의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시·도교육청에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비를 부담하도록 해 교육

재정이 악화됐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3%로 상당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학교 운영 지원비 폐지와 관련해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시·도교육청은 규정 개정을 대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공무원인 교원임용 시험 출제의 국가기관 담당, 시·도교육청 분청 실·국 증설 등 교육현안 5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와 전국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전국 교육감들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선출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교육자치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교육계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근 취임한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해 시·도교육감들과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교육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정렬기자 jwpark@

직장인 평균 점심값 6219원

작년보다 212원 올라...김치찌개 인기

직장인 평균 점심 비용은 6천 219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8~17일 직장인 76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59.9%)이 점심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조금 올랐다는 응답률(34.2%)까지 포함하면 점심 비용이 올랐다는 응답자는 대부분(94.1%)을 차지했다.

비용은 평균 6천219원으로 작년 6천719원보다 212원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이 644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6212원,

그 외 지역 5832원이었다.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기준(복수 응답)으로 가격(82.0%)이 1위를 차지했고 맛(74.2%), 그날의 기분(30.7%), 음식 나오는 속도(16.9%), 양(15.4%), 서비스(10.2%) 등이 뒤를 이었다.

자주 먹는 점심 메뉴(복수 응답)는 김치찌개(39.3%)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백반(34.5%), 된장찌개(26.6%), 비빔밥(24.2%), 돈가스(22.4%), 김밥(18.2%), 부대찌개(16.4%) 등의 순이었다. /*연환뉴스

광주시, '울통불통' 도로 5월까지 보수공사

차선 도색·표지판 정비

광주시는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까지 주요도로의 차선 도색과 보수공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열이 많이 발생한 비엔날레로, 어등대로, 월곡산성로 등 총 연장 3.7km에 대해 보수공사가 이뤄지며 무진대로, 빛고을대로, 제2순환도로 등의 주요 관문도로를 포함한 총 28개 노선 연장 74km에 대해서는 차선도색 공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노후한 교량 8곳에 대해

서는 보수공사를 하고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도로표지판 210곳도 정비한다.

임희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오는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시작으로 제12차 세계한상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공사구간 차선 축소와 지·정체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작년 광주·전남 일반고 1학기 내신성적 분석해보니

"수학 평균점수, 절반이 50점 미만"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절반이 수학 평균점수가 50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수학평균 점수는 51.2점이다. 광주는 49.7점으로 평균에 못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였으며, 전남은 52.9점으로 7위였다.

21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은 학교알리미에 공식된 전국 일반고 1637개교의 지난해 1학기 1학년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 중 1개교는 1학년 학생들의 내신 수학시험 평균 점수가 50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마다 성취기준과 문제 난이도가 달라 학교별 학력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고등학생이 수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학포기' 상황임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전국 일반고 중 절반에 가까운 741개교(45.3%)의 1학년 수학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었다. 국어와 영어는 평균 점수가 50점에 못 미치는 학교가 각각 94개교(5.7%), 276개교(16.8%)에 불과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23일 오후 8시 30분

지구촌 불끄기 행사

기후변화의 심각함을 전 세계가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토요일 밤 지구촌의 조명을 일제히 끄는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구촌을 위한 한 시간,

2013 어스 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공공기관 건물 7만 4700곳과 공동주택 269만9357가구가 참여한다. 서울 63빌딩과 N타워, 한강 교량, 부산타워, 울산 삼리대밭교 등 전국 곳곳의 주요 상징물 453곳도 한 시간 동안 조명을 끈다. /*연환뉴스

해남군
Haenam County

The 4th Ttangkkeut Maehwa Festival

땅끝에서 느끼는 매화향기

제 4회 땅끝 매화축제

장소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보해매실농원 일원

기간 | 2013. 3.30 (토) ~ 3.31 (일)

행사 | 축하쇼, 춤추는 난타 공연, 매화장신구체험, 평양예술단공연, 볼나물캐기 체험행사 등

특별행사: 매화사진 콘테스트

2013년 땅끝 해남에서 봄을 느끼세요!

해남우수영과 제주항을 잇는 첫 패속선 운항

3.29일! 매일 1회 운항!

봄철 남도 음식 별미, 참숯어회, 쭈꾸미 송어 뜯어잡이, 웨빙머거리

땅끝천년술길, 문화생태탐방로, 강강술래길 소개

몸과 마음의 치유! 봄길 트레킹